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분석\*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m, Sung Hye. (2017). Analysis of chang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dern English Education*, 18(3), 91-111.**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chang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nnounced on September 23, 2015. The new curriculum aims to build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management competence, community competenc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e for students to prepare for the future. Another major change is the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table that extracts the content elements to be learned in the English curriculum and presents skills required to apply them. Therefore, the study discussed the major changes such as the definition of core competency, the scope of reflection of key competences on the curriculum, and the function of the contents table. In addition,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were discussed. First, it does not directly reflect core competencies in achievement standards. Even though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emphasizes student-centered learning and process-oriented evaluation to build the core competency, it is unclear whether it suggests a concrete plan to apply it. Second, since the elective courses designed for career guides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teaching and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chang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core competencies/student-centered learning/process-based evaluation/  
2015 개정 교육과정/핵심역량/학생중심수업/과정중심평가]

### I. 서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년 9월 23일 고시되었고, 2018년부터 초등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교사 연수와 자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도서의 보급을 앞

\* 201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과제인 C. B. Im et al.(2015)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연구 논문임.

두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과와 성격의 충돈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규명하여 ‘영어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영어과에 적합한 교과 역량으로 선정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2015, p. 3)에 의하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자기관리 역량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둘째, 내용체계표를 구성하여 문서 체계의 제시 방법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어과 핵심개념을 도출하고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내용체계표에 따른 교육 내용의 재구조화를 통해 성취기준의 수를 감축하고 성취기준의 진술을 명료화하였으며, 학교급별 내용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변화로 공통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신설되었다. 공통 과목인 ‘영어’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지식 습득을 위하여 신설되었다. 또한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흥미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가 신설되었다.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괴리에 대한 비판은 개정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S. Lee(2012)는 학년군제 도입, 성취기준의 모호성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실행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S. Lee(2016)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역량 선정, 내용체계표 구성, 성취기준의 개발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분석의 범위와 수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미흡하다. M. Lee와 D. Shin(2015)은 기본어휘목록 구성의 원리와 어휘지침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집필 시 기본어휘목록의 90%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본어휘목록을 구성하는 파생과 굴절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학년별로 허용되는 외래어의 수와 목록을 수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주로 문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체 역량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연구(J. Kim & E. Jang, 2015),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예를 다룬 연구(A. Y. Park & K. H. Han, 2016), 문화교육을 위해 영미문화의 특성을 음식 명칭에서 살펴본 연구(D. Shin, 2016)가 있다. P. Hwang(2016)은 초등학교 급의 읽기 성취기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의 수준이 다소 높아졌다는 우려와 중학교 급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연구는 어휘, 문화,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등으로 분석대상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의 수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인 핵심역량과 내용체계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과정에 도입된 핵심역량과 영어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핵심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 방안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과 교과역량을 정의하고,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체계표’를 새로이 제시하였으므로 내용체계표와 이를 활용한 성취기준 개발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 시에는 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취기준을 수정하거나 새로이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점은 공통 과목의 도입과 선택 과목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과목과 달리 신설된 교과목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성적 처리 방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 II. 영어과 핵심역량과 내용체계표

### 1. 영어과 교과역량

교육과정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7차례의 개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래 어느 때보다도 시대 변화가 요구하는 교육의 틀 마련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재구성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과 핵심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을 탐색하고 이를 영어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과역량을 추출하고자 하는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C. B. Im et al.(2013a)은 K. H. Lee et al.(2013)에 근거하여 의사소통능력, 국제사회문화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시민 의식, 개방성 및 유연성,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의 9개 항목을 영어과 핵심역량으로 도출하였다. I. S. Kim et al.(2014)에서는 S. K. Park et al.(2014)에서 제시한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 능력, 창의적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능력 등 7개의 핵심역량을 영어과 특성에 맞는 의미와 하위 요소로 재해석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시안 개발 단계(C. B. Im, 2015)에서 교과역량을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

습 능력, 개방성 및 유연성, 정보 문해력의 4가지로 축소하고 각각의 의미와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시안 개발 단계에서 제시한 교과역량의 명칭을 영어과에 적절하게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수정하고 교육과정의 ‘성격’에 각각의 정의를 표 1에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TABLE 1

Definitions and Elements of Competencies (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

Subject Competencies	Definition	Sub-element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required in daily life	The ability to understand English and express oneself in English
Self-management competence	The learners' ability to continue studying English on their own based on their interest in English	The learners' interest in English, motivation for studying English, maintenance of confidence in their English competence, learning strategies, self-management and assessment
Community competence	The ability to show interest in the life of the local, national, and world communities and participate in resolving problems confronted by the communities by sharing their values and attitudes as a member of the communities	Consideration and generosity, interpersonal skills, cultural identity, ability to understand and embrac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e	The ability to appropriately utilize information in English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information ethics, ability to utilize media

‘성격’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향’에서도 교육과정과 교과역량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47) ‘언어 기능을 통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함으로써 실제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침들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성이 있다.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학습자 중심의 과업 및 체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는 자기 관리 역량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등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한다’,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한다’는 공동체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정보 통신 기술 도구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는 정보처리 역량의 함양과 관련성이 높다.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 핵심역량 신장과 관련 있는 언어 기능 통합 활동,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학습, 협동 및 협력 학습, 과업 중심 학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과정의 ‘평가’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자기평가, 지필평가(선택형 문항: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배열형/서답형 문항: 단답형, 제한적 논술형, 논술형), 수행평가(관찰, 구술, 면접, 시연 등) 등이 해당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교과 성격에 명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업 방법 및 평가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성취기준에 기반한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고 수업의 맥락과 연계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학생의 발전과 성장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 접근 방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의 사례를 활용하고 이에 적합한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성취기준의 도달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내용체계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변화는 내용체계표의 구성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1. 성격, 2. 목표, 3.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체계’에는 ‘내용체계표’와 ‘언어재료’가 제시된다. 언어재료는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활동’, ‘문화’, ‘소재’,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어휘’, ‘언어형식’ 등 영어과 학습 내용 구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이다. 내용체계표는 영어과에서 학습하여야 할 내용 요소를 추출한 것으로, ‘어떠한 학습 요소를 배워 어떠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학교 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학교급별 성취기준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영어과 내용체계표<sup>2</sup>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로 ‘핵심개념’, ‘내용(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 개념을 ‘핵심개념’이라 하고, 핵심개념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내용(일반화된 지식)’을 정의하였다.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년에서 배워야 할 주요 개념이 ‘내용 요소’이며, 학습자가 내용을 배워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즉 수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 ‘기능’이다.

내용체계표의 내용 요소는 각 학년(군)에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상위 학교급에 해당하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내용 요소를 제시한 경우에는 어휘, 소재, 언어 형식 등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심화 학습의 형태를 갖는다. 모방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등의 기능은 학생들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표 2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의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일부이다.

<sup>1</sup> 내용체계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은 C. B. Im et al.(2015)에 따른다.

**TABLE 2**  
 Contents Structure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15, p. 200)

Domain	Key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s				Functions
			Grade 3-4 in Elementary School	Grade 5-6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Speaking	Conversation	Deliver messages	·Self-introduction ·Directions, explanations	·Self-introduction ·Directions, explanations ·Nearby People and things ·Nearby Locations and places	·People, things ·Places ·Opinions, feelings ·Pictures, Photographs, Graphs ·Methods, procedures ·Self-introduction	·People, things ·Places ·Opinions, feelings ·Pictures, Photographs, Graphs ·Methods, procedures ·Self-introduction ·Topics, main ideas	·Explaining ·Expressing
Writing	Sentences	Write sentences	·Punctuation marks ·Sentences acquired orally	·Goals, situations ·Opinions, feelings ·Pictures, photographs, graphs ·Experiences, plans	·Goals, situations ·Opinions, feelings ·Pictures, photographs, graphs ·Topics, main ideas	·Expressing ·Applying	
	Compositions						Write compositions appropriate to situations and purposes

말하기 영역 핵심 개념인 ‘담화’ 수준에서는 ‘의미를 전달한다’, ‘의미를 교환한다’와 같이 의사소통의 방향 즉 일방성 및 쌍방성에 근거하여 일반화된 지식을 구분하고 있다.<sup>3</sup> ‘자기소개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고, ‘~주고 받는다’로 진술되어 있는 성취기준은 ‘의미를 교환한다’에 해당한다. 쓰기 영역의 핵심개념 ‘문장’과 ‘작문’ 각각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지식 ‘문장을 쓴다’,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글을 쓴다’는 문장 수준의 글과 문장 수준 이상의 글을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문장 수준 이상에서는 실용문을 포함한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글의 목적을 고려한 글쓰기 활동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중학교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9영04-01]~[9영04-04]는 일반화된 지식 ‘문장을 쓴다’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고, [9영04-05]~[9영04-06]는 ‘상황과 목적에 맞게 글을 쓴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영04-01]일상생활에 관한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9영04-02]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9영04-03]일상생활에 관한 그림, 사진, 또는 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9영04-04]개인 생활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문장을 쓸 수 있다.

[9영04-05]자신이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관해 짧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9영04-06]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위로, 일기, 편지 등의 글을 쓸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8)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내용체계표의 ‘내용 요소’와 역량을 구체화한 ‘기능’을 결합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함양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지식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 하에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수행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교과역량이 자연스럽게 함양되도록 하였다.

### III.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목표로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적정

<sup>2</sup> 말하기 영역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은 ‘소리, 어휘 및 문장, 담화’이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지식 내용을 ‘소리를 따라 말한다’, ‘낱말이나 문장을 말한다’, ‘의미를 전달한다’, ‘의미를 교환한다’로 정의하였다. 표 2는 이 가운데 일부를 축소하여 제시하였다.

화를 도모하고자 교과 내용을 기준 시수의 80%로 제시하고 나머지 20%는 교사의 여유 시간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내용의 적정화<sup>4</sup>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대비한 성취기준의 수와 진술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에서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년군별로 각각 13개가 감소했다. 고등학교 급에서의 성취기준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선택 교육 과정으로 교과목의 수업 단위가 다른 학년군에 비하여 적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다른 학교급보다는 포괄적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인 ‘영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이 아니므로 ‘영어I’과 비교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볼 때 중학교 1~3학년군의 쓰기 영역의 수가 12개에서 6개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수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Numbers of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09 and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a

	Elementary 3~4 Grade Group		Elementary 5~6 Grade Group		Middle School 1~3 Grade Group)		High School	
	2009	2015	2009	2015	2009	2015	2009	2015
Listening	11	7	10	7	9	9	5	5
Speaking	11	7	10	7	14	10	5	4
Reading	9	5	8	4	12	9	6	6
Writing	4	3	8	5	12	6	6	6
Total	35	22	36	23	47	34	22	21

표 4는 학교급별·영역별 성취기준 비율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비율이 증가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확대된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읽기와 쓰기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sup>3</sup> 학습내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영어과의 핵심이 되는 학습 내용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 Lee (2014)는 C. B. Im et al.(2013b)의 핵심성취기준 개발 연구에 근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TABLE 4**  
Percentage of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09 and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a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009	2015	2009	2015	2009	2015
Listening/Speaking	59%	62%	48%	56%	49%	42%
Reading/Writing	41%	38%	52%	44%	51%	5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개발의 특징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삭제, 신설의 변화 양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5</sup>. 듣기 영역에서는 찬트, 노래, 게임, 놀이, 전화 대화, 과업 등의 구체적인 활동은 내용체계표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삭제하였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듣기 활동으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듣기 영역의 삭제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4학년(군)]

- 지나간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 쉽고 간단한 찬트나 노래를 듣고 중심 표현을 이해한다.
-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중심 표현을 이해한다.
-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단순한 과업을 수행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

-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전화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표현을 듣고 이해한다.
- 간단한 전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간단한 묘사나 설명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중학교 1~3학년(군)]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고등학교 영어I]

-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1)

말하기 영역에서도 내용체계표의 핵심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 놀이, 전화 대화 등 활동 위주의 내용이 포함된 성취기준을 삭제하였다. ‘세부내용 내용 말하기’에서 다소 포괄적인 ‘~세부내용을 묻고 말한다’와 같은 진술이나 ‘~짧은 글을 읽고 차이점을 말한다’와 같은 다소 구체적인 진술도 삭제되었다. 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 가운데에

<sup>4</sup> 상세한 내용은 C. B. Im et al.(2015, 471-492)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비교표 참조하면 됨.

는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기준이 내용체계표의 구조화에 따라 다른 학년군에 비하여 삭제된 내용이 많다. 말하기 영역의 삭제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4학년(군)]

- 지나간 일에 관해 간단히 말한다.
-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에 참여하여 말한다.
- 쉽고 간단한 찬트나 노래를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부른다.

[초등학교 5~6학년(군)]

- 일상생활에 관해 간단히 이유를 묻고 답한다.
- 전화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표현을 한다.
- 간단한 전화 대화를 한다.
- 두세 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한다.
- 쉽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요청한다.

[중학교1~3학년(군)]

- 간단한 일상 용품의 사용법 등을 순서에 맞게 설명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묻고 답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제 및 요지를 말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이나 대화문을 활용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수행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읽고 차이점을 말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여 말한다.

[고등학교 영어]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그림, 표, 도식 등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1)

읽기 영역에서는 ‘~따라 읽는다, 소리 내어 읽는다’ 등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성취기준이 삭제되었고 ‘~표지판을 읽는다’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을 삭제하였다. 읽기 영역에서 삭제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4학년(군)]

-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따라 읽는다.
- 쉽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읽는다.
- 들은 것과 일치하는 낱말이나 어구를 찾아 읽는다.
- 그림, 실물, 동작 등을 통해 쉽고 간단한 낱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한다.
-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소리 내어 읽는다.

[초등학교 5~6학년(군)]

-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쉬운 글을 소리 내어 읽는다.

- 주변의 친숙한 대상의 이름이나 표지판 등을 읽고 이해한다.
-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
- 개인 생활을 소개하는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한다.

## [중학교1~3학년(군)]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짧은 글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1)

쓰기 영역에서는 ‘~따라 쓴다’, ‘문장을/결말을 완성한다’ 등의 성취기준을 삭제하였다. 쓰기 영역에서 삭제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3~4학년(군)]

- 구두로 익힌 낱말을 따라 쓴다.

## [초등학교 5~6학년(군)]

- 주어진 낱말이나 어구를 넣어 간단한 문장을 완성한다.
-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해 짧고 간단하게 쓴다.

## [중학교 1~3학년(군)]

- 주어진 낱말이나 어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주변의 실물,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보고 문장을 완성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말을 완성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쓴다.

(Ministry of Education, 2011)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신설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신설된 성취기준 보다는 대부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들을 병합한 형태가 많다. 이는 학습량 및 학습 내용 적정화라는 기본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듣기 영역 중학교 1~3학년군에서 신설된 성취기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한다’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를 병합한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다.

말하기 영역의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해 한두 문장으로 말한다’와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명령을 한다’를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로 통합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는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관해 간단히 말한다’를 ‘주변 사람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 ‘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다’, ‘주변 위치나 장소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로 세분하여 신설하였다.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묻고 답한다'와 '일상생활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을 묻고 답한다'를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로 병합하였다. 더불어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내용요소인 자기 소개와 연계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묻고 답한다'를 초등학교 급과 연계하여 '주변의 사람, 사물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와 '주변의 위치나 장소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로 세분하여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람과 사물은 묘사하는 대상이고 위치나 장소는 설명하는 대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 영역의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는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다.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줄거리를 파악한다'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를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로 병합하였다. 쓰기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문장 안에서 인쇄체 대·소문자를 바르게 쓴다'와 '문장 안에서 구두점을 바르게 쓴다'를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부호를 문장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로 병합하였다.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초대, 감사, 축하, 위로 등의 짧은 글을 쓴다'와 '간단한 일기, 편지, 광고문, 안내문을 쓴다'를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위로, 일기, 편지 등의 글을 쓸 수 있다'로 병합하였다.

## 듣기

[초등학교 5~6학(군)]

-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일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군)]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 말하기

[초등학교 3~4학년(군)]

-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5~6학년(군)]

- 주변 사람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
- 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다.
- 주변 위치나 장소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군)]

-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 주변의 사람, 사물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 주변의 위치나 장소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 읽기

[초등학교 3~4학년(군)]

-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1~3학년(군)]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쓰기

[초등학교 5~6학년(군)]

-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부호를 문장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군)]

-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위로, 일기, 편지 등의 글을 쓸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삭제된 성취기준이 많고, 새로이 진술된 경우는 주로 병합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성취기준의 수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표의 핵심 개념을 반영하는 성취기준을 유지하고, 모호한 진술을 명료하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성취 기준의 수와 진술의 변화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내용 적정화라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2015 개정 영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특성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K. J. Kim et al.(2015)에 따르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고자 공통 과목을 신설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다양화하여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며,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K. J. Kim et al., 2015, p. 15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영어는 폐지되고, 심화 과목은 전문교과로 편성되었으며, 공통 과목과 진로선택의 과목이 신설되었다(그림1 참조).

2009 Revised Curriculum				
Classification	Subject Area	Subject (Group)	Subject	
Regular Subject	Basic	English	Basic Subject	Basic English
			General Subject	Practical English I,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Practic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Practical English II, English I,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English II
			Advanced Subject	Advanced English I,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I, Advanced English Reading I, Advanced English Reading II, Advanced English Writing
↓				
2015 Revised Curriculum				
Classification	Subject Area	Subject (Group)	Subject	
Regular Subject	Basic	English	Common Subject	English
			General Elective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I, English Reading and Writing, English II
			Career Elective	Practical English,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Career English,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Specialized Subject I		Foreign Languages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I, Advanced English I, Advanced English II, Advanced English Reading I, Advanced English Reading II, Advanced English Writing I, Advanced English Writing II	

FIGURE 1 Changes in the 2015 High School English Curriculum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의 도입이라 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진로 선택 과목’ 교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진로 선택 과목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교과는 실생활 체험 및 진로 안내를 위한 교과 성격에 맞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및 평가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영미 문학 읽기는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교사가 영미 문학 가운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읽기의 심화 학습보다는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인문학적 소양을 닦는 기회로써 읽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용영어]

‘실용 영어’는 공통 과목인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

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영어권문화]

‘영어권 문화’는 공통 과목인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진로영어]

‘진로 영어’는 공통 과목인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관한 정보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미래 진로 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일반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 계발을 위하여 영어를 학습하게 하는 과목이다. 학습자들의 진로와 전공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융합학습 또는 진로 탐색 및 체험 등을 통해 언어 능력을 계발하도록 한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영미문학읽기]

‘영미 문학 읽기’는 영미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소설, 시, 희곡 등 문학 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하여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심화시키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영어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이다.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pp. 144 -193)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공통 과목인 ‘영어’를 8단위 내외로 증감 편성하여 이수한 이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가운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의 고려 사항은 교과목에 제시된 특성뿐만 아니라 표 5에 제시된 어휘 수에 따른 교과목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I’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용 영어II’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II’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II’와 어휘 수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영어를 이수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가운데 2과목을 학기별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II, 또는 진로 과목이나 전문교과 가운데 일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TABLE 5**  
Vocabulary Limit of the 2015 High School English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15, p.12)

The Number of Words for Elective Subjects for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Subject		Number of Words
Common	English (8)	Approximately 1,800
General Elective	English conversation (5)	Within 1,500
	English I (5)	Within 2,000
	English Reading and Writing (5)	Within 2,200
	English II (5)	Within 2,500
	Practical English (5)	Within 2,000
Career Elective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5)	Within 2,200
	Career English (5)	Within 2,500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5)	Within 3,000
Specialized Subject I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	Within 1,800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I	Within 2,000
	Advanced English I	Within 2,500
	Advanced English II	Within 2,800
	Advanced English reading I	Within 3,300
	Advanced English reading II	Within 3,500
	Advanced English writing I	Within 2,000
	Advanced English writing II	Within 2,300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지침을 학교급 별로 세분화하여 고등학교 급의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기본어휘목록 3000개의 어휘를 초등 권장 어휘 800개(기존에는 초등 권장 어휘만 798개 구분하였음), 중·고등 일반 선택 권장 어휘 1,700개, 고등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I 선택 권장 어휘 500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초등 권장 어휘는 ‘\*’를 표시하였고, 고등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I 선택 권장 어휘는 ‘\*\*’로 표시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별표 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6과 같이 ‘●’ 표시를 통해 학습 시작 학교급을 제시하였다.

**TABLE 6**  
English Structures for Communi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5, p. 192)

Examples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8. Playing baseball is fun.	•		
We enjoy swimming in the pool.		•	
I'm interested in watching horror movies.		•	
I remembered John/John's coming late for class.			•
Did you go fishing last weekend?	•		
I don't feel like sleeping now.		•	
I cannot help doing things like that.		•	
It's no use trying to persuade me.			•
There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ime is money.			•
Life is worth living.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별로 적절한 어휘와 언어형식을 구분하였다. 이는 학교 급에 적절한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교육과정으로 교과역량인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다.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듣기,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은 영어로 된 지식을 찾아 활용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과의 관련성이 보다 높다. 말하기,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공동체 역량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성취기준 진술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학습 내용에 포함하여 교수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 학습 동기, 흥미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 역량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시적이지 않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하여야 할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한 내용체계표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C. B. Im. et al.(2015)에서 언급한 내용체계표 구성의 의의와 제약점은 다음과 같다. 영어교과는 지식이나 개념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 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므로 기능이 아닌 학습 내용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는 영어교과의 학습에 필수적인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었고, 이를 표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내용체계표는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한 성취기준의 진술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파악하기 등의 기능 제시가 제한적이어서 기능 교과로서의 영어과의 특성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제약이 있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 내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성취기준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새로 신설된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볼 때 삭제된 성취기준이 많았으며 이는 핵심 개념에 해당하지 않은 성취기준이었으며, 신설된 경우는 극히 적었는데 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병합한 형태가 많았다. 성취기준 수의 축소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내용의 적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원리로 ‘최소 필수’의 개념을 강조한 핵심 성취기준을 선별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M. Lee, 2014).

마지막으로 학교급별로 볼 때 고등학교에 진로 선택 과목(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이 신설되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 교과목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학습자들의 역량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방식 구안이 어려울 수 있다. 2015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해 보는 교과이므로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 및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업과 평가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체험 중심과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핵심역량을 신장하는 데 필요한 구

체적이고 다양한 수업 사례, 평가도구에 대한 개발과 공유가 필요하다. 더불어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의 성장에 대한 기록 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Hwang, Pil-Ah. (2016).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primary English reading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4), 147-165.
- Im, Chan Binn. (2015). Content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English Curriculum. I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Eds.) *Review of the draft of 2015 national English curriculum* (pp. 3-66) (ORM 2015-59).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 Chan Binn, Joo, Hyung Mi, Kim, Sung Hye, Lee, Young A, Lee, Wan Ki, Kim, Jin Wan, & Min, Chan Kyu. (2013a). *National English curriculum development for future society* (CRC 2013-25).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 Chan Binn, Lee, Hye won, Joo, Hyung Mi, Lee, Young A, Lee, Yoon, Yoon, Young Ae, & Kwon, Young Ae. (2013b). *Development of core achievement standards based o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RC 2013-5).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 Chan Binn, Lee, Moon-Bok, Lee, Hye Won, Kim, Sung Hye, Joo, Hyung Mi, Lim, Su Yeon, Park, Young Hyo, Kim, So Yeon, Lee, Wan Ki, Lee, Young A, Park, Han Jun, Keon, Hee Joo, Keon, Young Ae, Song, Min Young, Choi, Yeon Hee, Yoon, Young Ae, Kang, Hye Jeong, Cho, Ji Hyung, Kim, Jin Wan, Maeng, Unkyung, Woo, Eun Jeong, Kim, Eun Ha, Eh, Do Sun, Shin, Dong-Kwang, Park, Byung Hyo, & Park, Jeon Eun. (2015). *Development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II: English* (CRC 2015-25-12).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im, In Suk, Lee, Wan Ki, Im, Chan Binn, Lee, Young Ah, Woo, Eun Jeong, & Park, Han Jun. (2014). *Study on integrated curriculum of humanities and sciences*. Seoul,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Kim, Jin-Seok, & Jang, Eun-Suk. (2015). Contents and teaching and learning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curriculum based on community competency for speakers of different cultures. *Global Studies Education*, 7(4), 55-78.
- Kim, Kyung Ja, Kwak, Sang Hoon, Baek, Nam Jin, Song, Ho Hyun, On, Jeong Duck, Lee, Seung Mi, Han, Hye Jeong, Huh, Byeon Yoon, & Hong, Eun Sook. (2015). *Development of 2015 national curriculum*. Seoul, Korea: Committee for National

## Curriculum Revision.

- Lee, Keun Ho, Kim, Ki Cheol, Kim, Sa Hoon, Kim, Hyun Mi, Lee, Myung Jin, Lee, Sang Ha, & Lee, In Je. (2013). *Improvement plan of the subject curriculum based on the key competencies-focusing on the alignment of curriculum,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assessment* (CRC 2013-17).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Moonbok. (2014). A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r integrating the liberal arts and the sciences.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277-295.
- Lee, Moon-Bok, & Shin, Dong-Kwang. (2015). Development of the Korean basic English word lis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4(4), 115-134.
- Lee, Soyung. (2012). A critique of the 2009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6(3), 731-747.
- Lee, Soyung. (2016). Major changes and issues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With a focus on its common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6(7), 499-519.
- Ministry of Education. (2011). *2009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2011-361).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2015-74-14).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Park, A Young, & Kim, Kyoung Hahn. (2016). Developing materials for teaching culture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4), 61-81.
- Park, Soon Kyung, Kim, Sa Hoon, Kim, Jin Sook, Baek, Kyung Sun, Byun, Hee Yeon, Ahn, Jong Wook, Yang, Jeong Sil, Lee, Kwang Woo, Lee, Keun Ho, Lee, Mi Kyung, Lee, Mi Sook, Lee, Seung Mi, Lee, Hye Won, Jeong, Young Keun, & Han, Hye Jeong. (2014).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CRC 2014-1).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Shin, Dong-Kwang. (2016).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culture education using corpus-based materials: Focusing on food cultur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531-55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 Secondary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Tel: 02-3704-3817  
Email: shkim@kice.re.kr

Received 25 June 2017  
Revised 5 August 2017  
Accepted 22 August 2017